

# 나눔터

1995. 9  
제 16 호

제 16 호 1995년 9월 15일 발행  
발행처: 한국성폭력상담소  
발행인: 김성애  
디자인: 김성애 디자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양소심 판결에 대한 항의시위

## 차례

이런 일을 했습니다 .....	2
이렇게 생각한다 .....	3
여기는 상담실 .....	4
특집:성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	6
몸이야기 .....	9
연재기획:직장내 성폭력, 알고 예방합시다③ .....	10
PC통신 한마당 .....	11
알 아답시다 .....	12
나눔터 애깃글 .....	13
성문화 읽기 .....	14
소개합니다 / 알림판 .....	15

**상담소 전체 숙박교육**

6월 24일에서 25일까지 1박 2일간 강촌 유스 호스텔에서 상담소 전체 숙박교육이 있었다. 상근자와 상담원, 나눔이, 지킴이가 함께 참여하여 즐거운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자원활동의 의미와 역할'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함께 토론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여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정신대 수요시위**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173차 정신대 수요시위가 본 상담소 주관으로 7월 12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이날 수요시위에서는 노래와 춤판에 이어 정신대 문제에 대한 상담소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현재 일본 정부는 범죄 사실에 대한 사죄, 일본 정부의 민간위로금 안 반대, 법적 배상과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우조교 패소' 판결에 항의하는 침묵 시위**

지난 7월 25일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우조교의 패소가 선고되었다. 이에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는 일차적으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본 상담소는 공대위에서 꾸준히 활동해 왔으며 침묵시위에도 적극 참가하였다.

**제7기 상담원 교육 수료식**

제7기 상담원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의 수료식이 있었다. 5월부터 두 달간의 교육과 한달간의 실습과정을 모두 마친 상담원은 총22명이다.



**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전문가 평석회 및 여성·시민 규탄대회**

지난 8월 2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성희롱 판결에 대한 평석회 및 여성, 시민 규탄대회」가 열렸다. 공대위 공동대표인 본 상담소 최영애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전문가들로부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각 단체의 입장발표 및 공동결의문 채택과 낭독이 있었다.



# 아름다운 성, 희롱 당하는 성

박 원 순 (변호사)



이간의 성은 신이 준 고귀한 선물이다. 남녀의 구별이 없음을 가정해 보라. 그 삭막한 세상은 살 가치조차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마치 그것이 권리이기라도 한듯이 성을 매개로 한 농담과 공격적인 동작을 하는 것을 예사로 한다. 하나의 장난거리이며 술자리의 '안주'로써 말이다. 그런 농담을 잘하는 사람은 대단히 호쾌한 남성으로 치부된다. 또한 그것을 잘 받아넘기지 못하는 여성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정도로 간주된다.

그러나 누가 알랴. 연못가 소년이 무심코 던지는 돌맹이에 개구리는 생명을 잃는 것을. 그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농담, 어설픈 행동에도 술한 직장 여성들은 깊은 상처를 받는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만이 성을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약한 성폭력인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희롱의 피해는 더 클 수 있다. 더구나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성희롱은 추행, 강간에 이르는 출입구일 뿐이다.

지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1심에서 선고한 3천만원 위자료 판결이 지나치게 많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법정에서는 1년 가량이나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1백만불이 넘는 거액의 위자료감이다. 그런데 1심의 3천만원마저도 항소심에서 기각되고 말았다. 이 나라 모든 여성들이 사무실마다 나날이 당하는 그 고통의 깊이, 그 많은 나날의 가슴앓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이들의 열망을 이다지도 무참하게 깨버리는 판사들은 어느 나라의 판사들일까.

성희롱은 결코 여성의 남성에 대한 과도한 투쟁이 아니다. 그것은 다만 인간성의 본래 모습을 찾기 위한 작은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이 거대한 편견과 관습과 비인간성의 방벽 앞에서 우리는 절망하기 쉽다. 그러나 용감하게 일어서기만 한다면 그 방벽을 깨뜨리고 뛰어넘을 수 있다. 자! 우조교가 먼저 소리 높여 외쳤다. 그녀는 좌절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함께 그 뒤를 따를 때 저 방벽마저도 무너지지 않으랴.

# 성희롱 문화를 뜯어고치는 작업

이 정 자 (전문직여성클럽 한국연맹 회장)



서희롱 사건은 모든 직장 여성의 문제이며 모든 가정의 문제이다. 우리 딸이, 며느리가, 아내가 모두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인격적 모멸감과 강제성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을 호소하고 성적 행동의 위법성을 고발한데 대해, "그것은 친밀감의 표시이며 한국 사회에서는 견뎌낼 정도"라는 판결 요지는 피해자가 아파하고 있는 요점을 아프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우스꽝스러운 오류를 범한 것이다. 이번 판결이 성희롱을 위법시하려던 사회분위기를 오히려 성희롱 문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시킬까 두렵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남성의 관행을 정당화하는 성문화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은 성희롱 문화는 없어져야 하며 이 사회가 예의바르고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다 나은, 인간적이고 범죄없는 사회와 문화를 만드는데 기능해야 할 것이며 남성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위법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 규제조항의 탈락에 힘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국민의 대의기구인 입법부에 더 큰 책임이 주어질 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남녀고용평등법과 성폭력특별법에 성희롱을 규제하는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당신의 아내, 딸, 며느리가 이번 판결대로 "악의없는" 성희롱을 당해도 괜찮은지 다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아니다'라면 이번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소리내고, 대법원을 향해 또 한번의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자. 성희롱을 묵인하는 이 문화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 95년 상반기 상담활동

## 일반상담

상담부에서는 상담소 95년도 활동목표인 <내담자 지원체계의 활성화, 성폭력 예방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맞추어 상담부 활동목표를 <상담의 질적 향상, 상담원 재교육>으로 정하여 활동하여 왔다.

### 1. 상담현황

상반기 동안의 성폭력에 대한 상담은 501건으로 전체상담의 79.8%를 차지하였고(표1 참조), 상담 활동현황은 <표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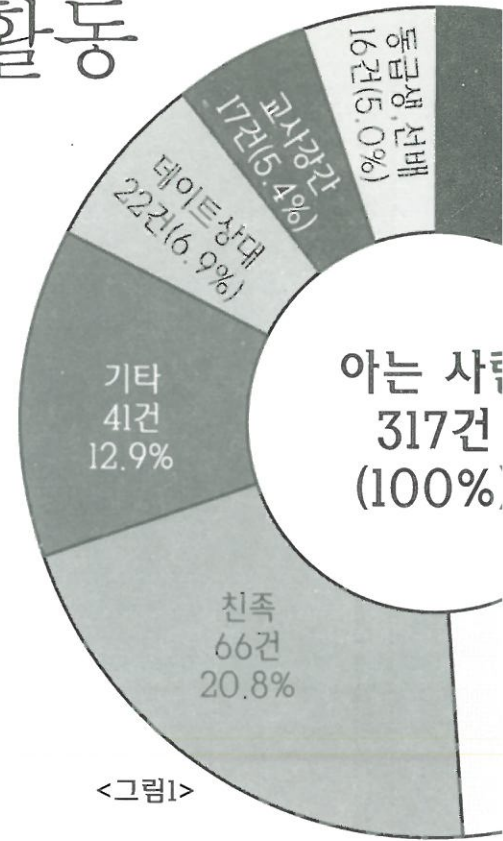
피해자의 연령은 성인이 257명(51.3%), 14세에서 19세의 청소년이 114명(22.8%),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129명(25.8%)으로 어린이성폭력에 대한 상담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는 아는 사람 317

건, 모르 사람 88건으로 이는 사람에게 의한 피해가 63.3%를 차지하며 <그림 1>에서 보듯이 아는 사람 중에는 친족과 직장동료, 상사, 동네사람 등이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2. 후속 조치

- 1) 경찰에 연계하여 수사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도왔다. (111건)
- 2) 병원으로 연계하여 증거채취와 응급치료를 하고 임신과 성병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정신과적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99건)
- 3) 법률지문위원 변호사들로 구성된 토요법률상담을 상설하여 법적지원을 요하는 내담자를 면담하여 사례를 검토, 자문받도록 도왔다. (103건 검토)
- 4) 올바른 성교육과 성인식이 요구되는 어린이 피해자 부모에게 상담소에서 발간된 자료들을 제공하였다. (53건)
- 5) 피해가 입은지 48시간이 되지 않은 사건은



<그림1>

	상담회수	상담건수
1월	137	79
2월	149	84
3월	212	122
4월	160	101
5월	183	115
6월	176	127
총 상담 회수	1017회	628건

▲ 표1

▶ 표2

	유형	가 해 자	피 해 자					소계	고소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성폭	성폭상대 273(56.4)	아는 사람 186(37.2)	친족	1	17	11	2	-	31(6.2)	3
			아버지,오빠	6	5	3	1	-	15(3.0)	-
			친,인척	9	5	9	1	-	24(4.3)	7
			동네사람	17	2	-	-	-	19(3.8)	-
			데이트상대	42	6	-	-	-	48(9.6)	7
			직장상사,동료	4	5	-	-	-	9(1.8)	-
			교사,강사	4	4	1	-	-	9(1.8)	1
			동급생,선배	19	8	4	-	-	31(6.2)	6
			기타	29	19	15	2	-	65(13.0)	9
			모르는 사람	7	3	1	-	-	11(2.2)	-
	미상	11	9	-	-	-	20(4.0)	3		
	유가족	1	4	2	2	-	9(1.8)	-		
	일반성추행 501(100)	아는 사람 131(26.2)	친족	1	3	2	5	-	11(2.2)	-
			아버지,오빠	8	2	15	25	-	50(10.0)	7
			친,인척	3	-	-	-	-	3(0.6)	-
동네사람			31	2	-	-	-	33(6.6)	4	
데이트상대			3	1	2	2	-	8(1.6)	1	
직장상사,동료			5	1	-	1	-	7(1.4)	-	
교사,강사			6	1	1	1	1	10(2.0)	2	
동급생,선배			9	1	6	7	-	23(4.6)	5	
기타			-	-	1	-	-	1(0.2)	-	
미상			9	3	3	-	-	15(3.0)	2	
모르는 사람	26	1	-	-	-	27(5.4)	1			
강간미수	6	13	3	1	-	23(4.6)	-			
언어추행	257(51.3)	114(22.8)	79(15.8)	50(10.0)	1(0.2)	501	58(11.6)			
기타	기타	성문제,순결	25	3	1	1	1	31	-	
		인신매매	-	1	-	-	-	1	1	
		아내구타	6	-	-	-	-	6	-	
		혼인빙자	3	-	-	-	-	3	-	
		장난전화	13	4	-	-	-	17	-	
계	계	60	6	2	-	1	69	2		
계	계	107	14	3	1	2	127	3		
재상담	재상담	강간	170	28	31	5	-	234	12	
		성추행	72	5	41	15	-	133	6	
		남성피해	-	4	-	-	-	4	-	
		기타	14	3	1	-	-	18	-	
계	계	256	40	73	20	-	389	18		
총계	총계	620	168	155	71	3	1017	79		



위기센터에 연계하여 신속한 대응과 조치를 하도록 도왔다. (84건)

6) 심각하고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어 가해자와의 격리가 필요한 내담자에게는 피난처인 열림터를 연계하였다. (11건)

7) 여성법률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청소년상담소 등 타기관에 연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도왔다.

8) 지속상담, 편지상담, 면접상담, 집단상담 등을 통해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신뢰와 자매애를 형성하여 안전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자아를 강화시키고, 장점과 힘을 발견하여 키워나가도록 심리상담을 하였다.

직장상사, 동료  
81건  
25.6%

동네사람  
74건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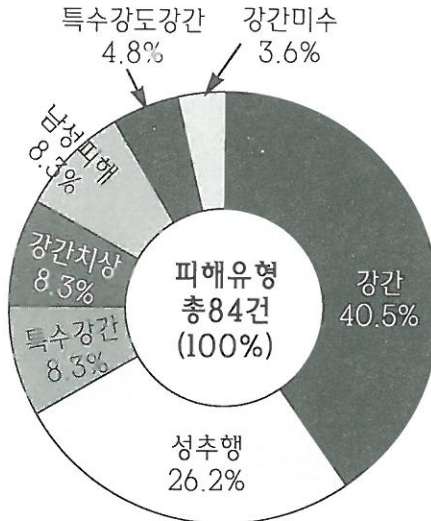
### 위기상담

1995년 상반기에 들어온 위기상담은 총 84건으로 전체 상담의 134%를 차지하고 있다.

84건의 위기상담을 피해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그림1>과 같다. 이전보다는 성추행이 좀 더 증가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을 보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59.5%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는 32.1%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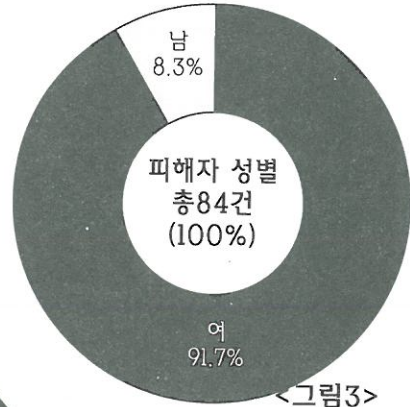
피해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83%로 예전보다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3>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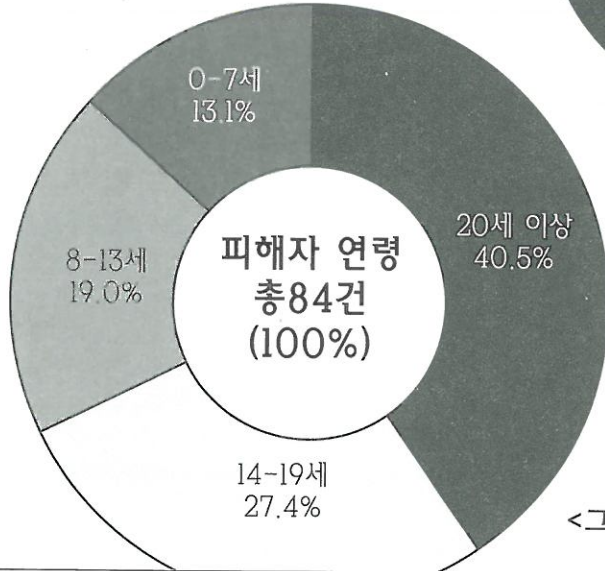
<그림1>  
성피해의 경우 꽤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오고 있으므로 남성피해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위기상담의 주요역할인 피해직후에 후속처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부인과 연계가 42.9%, 정신과 연계



<그림3>



<그림2>

### 열림터

#### 극복해야할 걸림돌, 순결상실감

열림터에서 실시하는 내담자 상담은 특별히 피해자 자신과 근친강간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고통 극복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분노 표출과 대결 연습 등을 해오고 있다. 열림터에서 4개월여동안 상담해 온 가양은 여태껏 가해자와 직면하여 분노를 표출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 가해자를 향해 하고 싶은 말들을 거침없이 하게 되었다. 이불 밑에 가해자 사진을 놓고 널빤지로 후려치는

과정을 통해 가해자 앞에서 평소 무력하기만 했던 지난날을 떠올리면서 이제 더이상 폭력의 횡포앞에 굴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듯 내담자의 약해진 내면을 치유하고 자신감을 키워가는 단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순결상실감이었다.

가양은 성년에 이르기까지 순결에 대해 강하게 주입받았기 때문에 순결상실감이 큰 편이었다. 근친강간후 아버지가 '넌 처녀가 아니니 아무데도 못 간다'라고 한 말로 훼손된 처녀성의 고통은 시작되었다. 이후, 심리적으로 의지한 기독교에서도 여성에게만 유달리 강조하는 순결의식 때문에 하얀 무리중에 자기만이 검은 점으로 있다는 강박의식에 시달릴 정도였다. 그러다 사귀게 된 남자에게 자신의 비밀을 들려준 가양은 다른 남자가

호의를 보이면 사탄의 유혹이라고 애써 생각하며 일종의 정조의식으로 현재 사귀는 남자에게 더욱 집착하게 되었다.

어린 내담자들의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순결에 대해 강박적인 생각이 많이 사라지지만 가정, 사회, 종교 등을 통해 굳건한 순결관이 세워진 경우에는 그런 관념을 탈피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다. 그러므로, 내담자 자신이 갖고 있는 순결관이 어떤 사회적 배경을 통해 주입되었는지, 또한 그러한 순결관이 내포하고 있는 성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담자와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나간다면 정당한 주체의식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내담자의 의식이 새롭고도 넓게 열리다면 그녀는 당연한 사회인으로서 자신감을 획득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것이다.



# 학교 성교육의 이 패러다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한 개인의 오만과 편견이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한 많은 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여성해방을 향해 진군해온 값어린 시간의 자취를 되돌려 놓았다는 점에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이 단순히 판사 개인이 가진 남성중심적, 가부장적 편견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써 그와 같은 폭력을 용인하고 조정하는 구조에 의해 지탱되고, 재생산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비단 성폭력의 가해자들 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고 조정하는 주변인들에 대해, 이들을 만들어내는 교육적 체계를 살펴보는 일은 성폭력이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적절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번 특집에서는 특히 성의 차이를 차별로 조건화시키고, 성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양산시키는 학교 성교육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학교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학교 성교육에 대하여 공식적인 성교육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필요가 있는 가라며 적극적으로 반대를 밝히는 입장은 이제 어느 곳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성폭력 세계 3위'라는 사실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그다지 '잘 살아오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뚜렷해지고 있는 성개방의 추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자각에서 연유한다. 관련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사들 자신도 현재의 아이들이 과거보다 조숙해졌다고 느끼고 있으며, 성교육의 문제가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리라 예상하고 보다 적절한 성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교사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으로 성교육이 성기(性器)교육이나 성기(性技)교육이 아니라 '성과 관련하여 남녀가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보는 인식상의 전환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 요인이 된다.

성교육의 개념과 목적에 대하여 WHO는 '성과 관계된 행위에 있어서 정서적, 감정적, 지적, 사회적인 모든 면이 통합되어 개인의 인격과 의사소통 및 사랑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학교 성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서울시교육연구원」에서도 성교육을 '인간존중의 사상을 바탕으로한 인격교육의 일부로서 남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장차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 반해 드러나는 현실은 지극히 대조적이다. 89년에서 93년 사이에 발표된 성교육에 관한 연구자료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인간교육'이 실시되는 곳은 63%에서 75% 정도로 아직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세분해 보면 92년도의 연구결과에서는 성교육을 받아본 남학생이 35%, 여학생이 90% 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성교육의 성격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 각급학교에서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방법을 살펴보면 국민학교의 경우 바른생활과 체육, 중·고등학교의 경우 가정과 생물, 윤리, 교련 등 관련된 교과목에서 그에 대한 내용이 언급될 때 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전체의 용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교과외 시간에 특강의 형식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여러 과목에서 분산되어 실시되는 성교육의 시간은 모두 합쳐도 한 학기당 2회 정도 1회당 2시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현재 성교육에 할당된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나 약간 부족하다고 대답하는 교사는 각각 23%와 58%로서 전체 교사의 81%가 성교육의 시간수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93년도 조사, 89년조사의 경우 77%) 대다수의 교사들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통계상의 수치도 현직 교사가 알려주는 상황에 비하면 낙관적인 것일

수 있다. 실제 남학교의 경우 성교육이라는 것이 거의 부재한 형편이고 여학교에서는 졸업하기 전에 한두시간 비디오를 상영하거나,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 정도라고 보면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학교 성교육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봐도 나타나는 문제점은 적지 않다. 교과서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주로 신체변화등의 생리적인 면에 치우쳐 있고 그나마도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춰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윤리교과등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그야말로 윤리적이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알고 싶어하고, 마땅히 알아야 할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있지 못한 채, 지극히 빈약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교육의 내용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교과서의 내용이 서로 분산되어 있다는 바로 그 점이다. 몇몇 연구에서 흩어져 있는 교과서의 내용들을 분석해 본 결과 성교육의 주요 내용중 상당부분이 어느 교과서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내용의 안배면에서도 학생들의 성숙도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다 교과마다의 분산으로 개별적인 내용은 그것이 성교육의 목적을 지녔다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되었으며, 하나의 가치 개념으로 통합되어 있지도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교과서의 내용만으로는 관련 교과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해도 바람직한 성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교육연구원」에서 1983년에 내놓은 것이 「성교육 지도자료」이며, 교육부에서도 최근에(92년) 교육개발원의 협조를 받아 이에 대한 교사용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같은 지도자료에 나타나는 내용은 일단 긍정적이다. '성'과 '남녀간의 역할'등을 다루는 시각도 바람직하며, 빠짐없이 중요한 내용들을 담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자료 역시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탓으로 실제의 교육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역부족이며, 활용되는 정도도 미미하다는 점에 있다. 교사들의 90%가 자료의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에 따라 교사가 임의로 내용의 양을 늘려 교육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성교육과 관련된 교사들조차 이러한 지도자료를 읽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응답자의 77%에 지나지 않고, 성교육시 지도자료에만 의거하여 가르치는 경우는 8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점에서 교사들이 성교육에 있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교재의 부족이라는 지적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실제로 89년에서 93년에 이르기까지 성교육에 대한 어느 연구조사를 보아도 성교육 실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적절한 교재의 부족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현장의 교사들이 참으로 '뼈저리게' 느끼는 점이다.

성교육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성과 관련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다.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룬 보편적이고 바람직한 내용을 검증 후에 적절하게 파악된 교육대상자에게 가르치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은 겉으로는 보수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현실은 성개방이 가속화되는 이중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성교육과 관련하여 가르칠 내용의 수준과 방향이 자리잡혀 있지 않은데다가 교육의 대상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명시해 놓은 교과서의 존재는 거의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교사들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교재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매우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교재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는 성교육을 담당할 지도교사의 문제다. 성교육은 다른 교육과는 달리 인성(人性)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를 담당할 교사의 지식수준과 자질은 성교육자체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성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우선적으로 성교육이 필요한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교사들은 교재의 문제 다음으로 '지식 및 지도능력의 부족'을 성교육 지도상의 어려움점으로 꼽고 있으며, 이를 타개할 연수프로그램의 실시를 교육부와 학교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사들이 바람직한 성교육을 위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미미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연구조사에 따라 85%에서 97%정도)이 이와 같은 연수 경험이 없으며, 연수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비율은 65% 정도에 불과하다. 46%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그들이 필요한 지식을 '독학으로' 관련된 서적을 통해 얻고 있으며, 잡지나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비율도 43%에 이르는데, 이는 학생들이 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통로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마련되어 있는 연수



현재 성교육의 체계가 왜곡된 성지식을 전파하며 내일의 가해자를 양산하는 구조적인 틀을 이룬다고 보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현재의 성교육이 남성중심적인 성지식과 함께 성역할 고정관념을 교육시켜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맞도록 개인을 사회화시키고, 성적 불평등을 강화시킨다는 데 있다.





조차도 한정된 인원에 대하여 년 1-2회 정도 실시될뿐이고, 그나마 1회 교육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두번 연수에 참가하였다고 해서 성교육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자질을 갖추게 되었다고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2. 성역할 고정관의 확대 · 재생산**

그러면 우리의 아이들은 현재의 학교 성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일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빈약한 성교육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아이들이 '성'에 대하여 무지한 것은 아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의 의견에 의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오히려 풍부한 편이다. 그런 점에서 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바가 적지 않다.

이에 의하면 성교육을 실시한 후 그에 대한 효과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의 46.4%가 '학생들이 가진 궁금하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풀렸을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학생들은 32.2%가 '다 아는 내용이라 시시하고 지루하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의 34.1%가 성교육의 내용이 어려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반면,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학생은 13.6%에 불과하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학생들이 가진 성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교사들이 우려하는 점은 이들이 가진 지식의 많은 부분이 부정확한 것이거나 왜곡된 형태의 것이라는 점이다.

몇가지 예로 학생들은 강간당한 여성들이 실제로는 이를 즐기는 것으로 믿고 있고 성과 관련된 여성들의 태도에 대하여, 처녀막에 대한 지식에 대하여도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학생들이 믿고 있는 왜곡된 성관(性觀)은 심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면, 생리학적인 면 모두를 포함하는데, 이는 현재의 성교육이 필요한 성지식을 정확하고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학생들은 그들이 직면한 성적인 문제-몽정, 자위행위, 이성교제에 대한 지식을 교사나 성교육과 관련된 교재를 통해서가 아닌 친구를 통해 얻고 있으며, 성욕이나 성충동에 대한 지식을 잡지등을 통해 습득하고 있는데, 이같은 대중매체들이야말로 왜곡되고 편견어린 관점을 유포시키는 주범인 것이다.

학생들이 왜곡된 자료들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는 것이 공식적인 교육체계가 이들

의 무지를 용인하기 때문이라고 볼 때, 이는 지금의 교육이 암묵적으로 장래 성폭력의 가해자들을 양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보는 근거가 된다.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견해는 성과 성폭력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데 무관심하므로써 남성들이 누려온 성적기득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공백을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흥미위주의 단편적이고 왜곡된 지식들로 채움으로써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시각을 답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성교육의 체계가 왜곡된 성지식을 전파하며 내일의 가해자를 양산하는 구조적인 틀을 이룬다고 보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현재의 성교육이 남성중심적인 성지식과 함께 성역할 고정관념을 교육시켜 가부장적 사회구조에 맞도록 개인을 사회화시키고, 성적 불평등을 강화시킨다는 데 있다.

흔히 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교육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투영되어 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시키곤 하는데, 이와같은 과정은 생물학적 성지식을 매개로 하므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한 예로 성적인 욕구에 대해 남성은 성충동이 강하나 여성은 곧잘 무욕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같은 맥락에서 피임에 대한 교육은 여학생에게 편중되는데(성교육지침서와 관련교과서에서 가족계획과 피임방법은 여학생 전용단원으로 설정된다) 이는 남성은 성적으로 우발적이고 충동적이어서 성관계 결과 수반된 임신에 대해서는 여성이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규정된 생물학적 성의 차이는 심리적 성의 차이로 추론되어 여성이 수동적이며 복종적인 인성을 가진 것으로 믿게끔하고, 성별분업에 대한 성차별로 확대되거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내재적인 근거로 자리잡게 된다.

**3. 성적 의사소통 (Sexual communication) 으로서의 성교육**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불식시키고, 학생들로 하여금 상호존중하는 인간관계를 맺도록 돕기 위해선 현재 드러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실제로 YMCA 청소년사업부산하 '성교육을 생각하는 교사회'를 이끌고 있는 경희고등학교의 김중남선생님은 성교육의 측면에서 현재의 시기를 '계몽주의 시기'로 비

유하고 그에 따른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혼란스럽고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므로, 교육 현장의 전반에서 기초적인 것부터 진보적인 대안들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우선 제시되는 것은 현재 여러 교과로 분산되어 있는 성교육의 내용을 이를 담당할 하나의 교과로 통합하여 학년에 따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펼 수 있게 하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성교육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할 적절하고 진보적인 내용의 교재를 편찬하는 일도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한편 이와 병행하여 성교육을 담당할 교사에 대한 적절한 연수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하며,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담교사제도」도 적극활용하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을 이해하고 이성과 원만하게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서서 성교육은 단순한 '성교육(sex education)'을 넘어 '성적 의사소통(sexual communication)'의 개념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는 성교육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사이에 빚어지는 성적 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인격을 포함하여 인간과 인간이 효율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대화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전인적인 교육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람직한 성교육체계의 필요성은 성적인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바람직한 성교육체계가 인간의 다른 반쪽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평등하고 자율적인 관계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화하도록 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이는 곧 새로운 세기의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교육임을 알 수 있다. 다가오는 세기에 대비하여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충격 속에서도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단순히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공과대학을 세우거나, 외국어교육을 확대하는 것 이상의 교육적 대안이 필요하다. 생산수단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인간을 훈련시키는 것이 과거 교육의 목적이었다면, 인간과 인간간의 평등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여 지적이고 문화적인 기반을 창출하는 일은 변화하는 시기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조건이 된다.



# 세상 밖으로의 여행을 준비하는 기관들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음경과 음낭뿐이다. 꽤 많은 기관들이 그 뒤에 있고 그러한 기관들은 둘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살면서 숨어있는 고환이고, 또 하나는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를 작업장에 보내기까지의 여러가지 잡다한 일들을 분담하고 있는 기관 즉, 부고환이라고도 불리는 부고환, 정낭, 전립선, 음경 등으로 되어 있다.

먼저 고환은 여성의 난소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성세포인 정자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기관이다. 좌우에 한개씩 있고 보통 메추리알 크기만한 것으로 음낭이라고 하는 신축성있는 피부주머니 속에 있다. 이는 난소와 마찬가지로 한쪽을 떼어내어도 다른 한쪽이 건강하면 생식작용에는 큰 지장이 없다. 고환의 비서적인 부고환은 고환에 붙어 있는 것으로 연필 굵기 만한 것이며 그 내부에는 둥글둥글하게 달려 있는 가느다란 관으로 꽉 짜여있다. 이러한 미세한 관들은 한쪽은 고환에서 정자를 반출해내는 관에, 또 반대쪽은 정관에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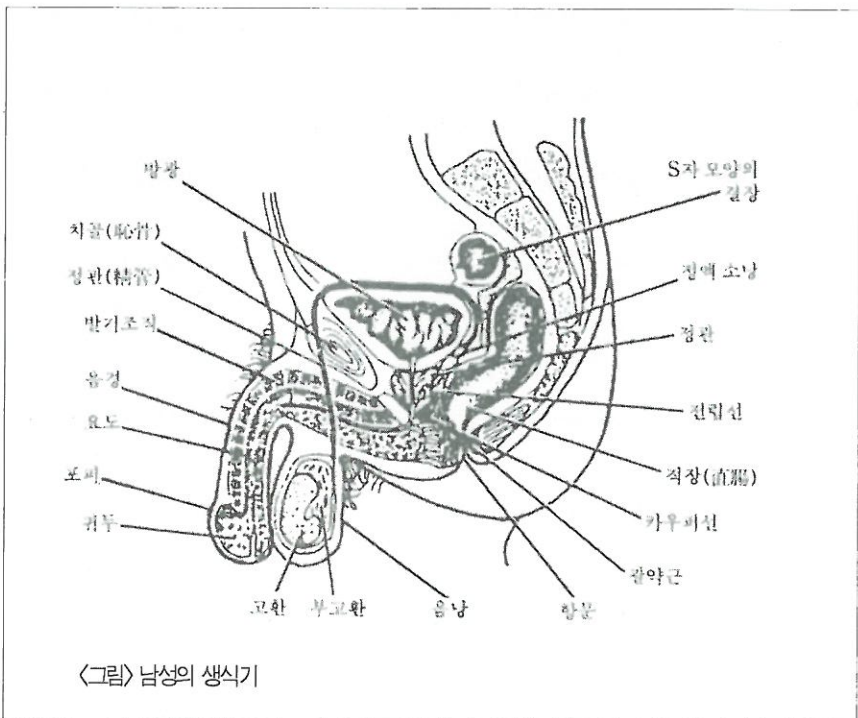
정관이라는 것은 부고환의 미세한 관에 연속되어 있는 정자를 수송하는 관으로서 방광에 가까운 요도내에 그 배출구를 열고 있다. 정관을 통해 수많은 정자들이 머무르게 되는 곳은 정낭이라는 주머니인데 여건이 성숙할 때를 기다리며 세상 밖을 여행할 준비를 하는 곳이다. 여기에서 정자의 무리에 함유하는 것은 정량액이라고 하는 한천과도 같은 액체이다.

정량액이 정자와 함유하자 이에 질세라 정자에게 같이 여행가자고 달랑 뛰어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립선(전립선은 밤알과 같은 모양을 한 기관이다)에서 나오는 연한 우유같은 액체이다. 이 동반자들 즉, 우유같은 액체와 아까 함유한 정량액은 정자와 합쳐져서 하나의 여행집단을 만드는데 이 집단의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정액'인 것이다.

음낭은 고환, 부고환 그리고 정관의 일부가 들어 있는 주머니인데 음경 뒷편에 매달려 있으며 주름이 많은 신축성 있는 피부로 싸여 있다. 우리가 페니스라고 부르는 음경은 그 속에 요도가 지나가는 둥근 통모양의 기관으로 그 요도는 방광내에 넘실넘실 차

지 난호까지는 여성의 생리현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쯤해서 여성의 반쪽인 남성의 몸과 생리현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흔히 남성의 성기구조와 생리현상은 지극히 단순하다고만 여겨져왔다. 민감한 여성의 몸에 비해 남성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연령의 단계에 따라 호르몬의 분비, 신체 변화 등을 통해 복잡미묘한 작용과 구조를 갖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우선 성기의 구조를 살펴보고난 뒤 이후에 남성만이 가진 생리현상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남성의 성기는 각종 관련 책이나 백과사전에서 훑듯 많이 보았겠지만 그 모양이 언뜻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지도모양을 하고 있다.



<그림> 남성의 생식기

있는 오줌을 배설하는 기능과 사랑하는 여성의 질 내에 사정되는 정액을 배출하는 통로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정액이 배출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이 음경의 윗부분에 자리하고 있는 귀두라는 부분이다. 거북이 머리모양과 흡사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여기에는 요도의 문이 조용히 열려 있고, 오줌이나 정액이 여기를 최종 발착지로 체외에 방출되는 것이다.

홍은정 기자

# 지

난 7월 25일 우리 나라 최초의 성희롱 법정 소송 사건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피고 신교수에게 3천만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던 1심을 뒤엎은 원고 우조교에 대한 패소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이 판결이 여성만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판결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그럼에도 왜 이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판사의 판결에 대해 객관성을 의심하는 여론의 불일치가 나오는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법정이 외면한 조교의 진실

## 1. 판결문의 모순

### 1) 일반평균인의 입장?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한 품위와 예의를 지닌 일반 평균인의 입장이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보편적으로 일반평균인이란 우리 사회의 성문화는 성은 은밀한 것,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성에 대해 말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남성이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법조계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일반평균인이란 이 사회를 대변하는 남성이고, 재판부는 이러한 남성의 입장에서 성희롱 문제를 판결한 것이다. 결국 이번 성희롱 판결에는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 2) 악의가 있어야 된다?

재판부는 또한 “성적 괴롭힘이 되려면 성적 접촉이나 언행에 악의가 있어야 한다.” “정신적 고통을 받았어야 한다.”는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명확히 피해가 입증되는 강간피해자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근거이다. 본 상담소의 상담 사례를 보면 피해자는 지하철에서의 한번의 성희롱으로도 며칠을

모욕감과 불쾌감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 이 정도가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라면 성희롱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정신병자가 되어 창살박힌 정신병원에 갇혔을 때에만 법이 보호할 수 있던 말인가?

### 3) 성적인 성격이 노골적이고 성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어야?

재판부는 “성적 괴롭힘은 그 성적인 성격이 노골적이고 성적인 의도가 분명히 간취될 수 있어야 한다. 그 행위의 태양은 중대하고 철저한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본 상담소의 상담사례에서도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직장상사에 의한 성희롱일수록 ‘호의를 가장한 성적 접근’이 훨씬 많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나 성희롱 하겠소”하고 성희롱을 일삼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판결은 대부분의 성희롱 가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죄를 면할 구실을 주는 판결일 수 밖에 없다.

## 2 외면당한 진실

재판부가 제시한 이러한 판단 기준과 근거를 인정하고 이 사건을 판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조교 패소라는 결과는 부당하다.

### 1) 해임이 관례?

재판부는 우조교의 해임이 관례라고 인정을 했다. 그러나 기기담당 조교의 명문화된 계약기간은 1년이었지만 기기 사용이 숙련을 요하기 때문에 계약시 우조교에게 2년은 근무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조교들은 유학이나 취업으로 그만둔 것이 1년하고 그만두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그만둔 것이 아니다. 결국 해임이 관례라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그 근거가 너무 약하다. 특히 실질적인 임용권자로서의 책임이 총장에게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지만 실제 관례에서는 기기담당 교수가 임용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본다면 더욱 받아들여지기 힘든 논리이다.

### 2) 우조교는 불성실?

해임에 대한 근거 중의 하나가 우조교가 불성실했다는 것인데 이는 신교수가 성희롱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우조교에게 실험을 10개로 제한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성실하다고 하면서 해임시킨 것이다. 이는 업무를 핑계로 피해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다른 직장내 성폭력 가해자에게서 보여지는 흔한 방법이다.

### 3)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가 없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우조교가 5 6차례의 성희롱을 당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못



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조교는 분명 성희롱을 당했지만 법의 보호를 받을 정도의 불법성이 없으므로 감수해야 될 정도라고 한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이 땅에서 아직도 성희롱을 당하고 눈물 흘리는 수많은 여성들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다.

우조교가 피해 사실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 사회의 두터운 성에 대한 벽에 맞서 다른 사람도 아닌 교수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2년 넘는 재판과정을 감수했겠는가. 우조교가 성희롱을 참을 수 없어 고소한 행위 만으로도 피해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

### 3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물음표 투성이의

이번 항소심 판결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그동안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아 버린 반여성적인 판결이다. 뿐만 아니라 남녀가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역사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무책임한 판결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문화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판결이다. 또한 많은 모순과 남성중심적인 관점이 드러나 있다. 이제 우리는 눈 앞에 확실하게 나타난 우리 사회의 벽에 맞서 진정한 여성의 권리를 찾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우선 일차적으로 현행법에 있지 않은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 규제책을 만들어야 한다. 입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

법에 성희롱 규제 조항을 반드시 마련하여 직장에서의 여성의 노동권을 지켜주어야만 한다. 그리고 성희롱 규제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작업을 서둘러서 여성의 인권을 지켜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마땅히 대법원에서 파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동안 가장 아름다운 나이인 20대 중반에 무려 2년간이나 개인적인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낸 우리 모두의 딸일 수 있는 피해자 우조교의 진실을 찾아 주어야만 한다.

## PC통신 한마당

### '남자'라는 권력남용?

2차공판은 우조교의 패소로 끝났다. 그러나 이 사건은 3차공판으로 다시 올라가고 1년 남짓한 길고 긴 공판이 또 기다리고 있다. 1, 2차공판의 긴 시간동안 나타났던 우조교에 대한 의혹의 글이나 신교수에 대한 동정의 글 대부분이 남자에 의해 쓰여졌다. 이 글 바탕에는 자신이 '남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도 여실히 나타난다. 때문에 신교수와 막연히 공범의식을 느끼고 있는 남자들로서 아무래도 선뜻 우조교의 손을 들어주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고 신교수의 손을 슬그머니 들어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희롱 사건이라기보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여 권력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통제하려는 부당한 시도와 그에 대해 저항하는 노력이 부딪혔다는 근본적인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7.27 전주용)

### 일류병이 무관심의 원인

우조교 사건의 패소 판결을 보면서 이제 더이상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냉담한 사회 현실을 생각해 본다. 또한 왜 우리가 우조교에 대한 관심을 접어두게 되었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서울대 우조교는 서울대 대학원생도 아니었고 상류대 출신도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우조교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즉 초기에 이 사회가 느꼈던 분노는 '성희롱을 당한 여성'의 입장에서 나온 분노가 아니라 '한국의 최고 엘리트인 서울대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나온 분노라는 것이다. 만약 우조교가 서울대 대학원생이고 서울대 출신의 엘리트라고 하였어도 그녀가 패소 판결을 당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7.27 조운정)

### 힘내세요 누나!

지금 전 누나에게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누나의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 학교는 물론 저를 포함한 우리들 모두 후보로서 누나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한 채 방관만 했으니

까요. 만일 누나의 사건이 어떤 시국 문제였다면 지금처럼 방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여성에 대한 생각 자체가 사건을 알보게 할 정도로 일종의 성차별의식 편견에 빠져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누나의 학교가 아닌 타대학의 후배들이 누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누나에게 용기를 주는 움직임을 바라보는 이 후배는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누나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누나 힘내세요, 저희들의 마음은 모두 누나편입니다."

(7.27 신영득)

### 우조교는 페미니스트?

우조교 사건을 보면서 우조교가 페미니스트인가 아닌가라는 문제보다는 나의 유일한 관심사는 한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존엄성과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점이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페미니스트와 비페미니스트의 양분법적인 시각으로 우조교 사건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의 선동'이라는 부분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7.27 오승석)



# 얼굴없는 폭력

## PC통신폭력 등장

우리 나라의 PC통신인구는 8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도 펜티엄을 비롯한 PC보급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통신인구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 컴퓨터 통신이 만들어낸 문명의 이익 앞에도 '악'은 예외일 수 없다. PC통신을 통한 음란물에서부터 각종 사기사건, 통신상의 성폭력과 언어폭력까지 사용자를 불쾌하게 하는 내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 PC통신의 문제점은 전화폭력에서와 같이 상대방이 누군지 베일에 감춰진 채 단지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언어로만 폭력을 당한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전화폭력이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할지라도 전화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단순한 불쾌감에서부터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듯이, PC통신상에서의 폭력도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라는 도구의 차이만 있을 뿐 전화폭력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는 이제 상대방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기 보다는 전화와 컴퓨터로 더 많은 대화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말에 의해서 얼마나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는지 잊곤 한다. 그 결과 언어폭력은 항상 우리곁에서 일어나고 있다.

도대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얼마만큼 엄청난 것인가?

## 언어의 사회성

언어란 의사소통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기쁨, 즐거움, 행복, 경멸, 분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듯이 비판, 거짓, 폭력, 조롱, 학대 등도 표출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언어란 억압의 수단(금기사항이나 규칙의 부가)인 동시에 욕구의 해소나 감정의 분출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언어는 기호의 형태를 고정시킴으로써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동시에 퍼뜨리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언어가 이탈(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공통의 언어이며 지배적인 언어는 남성언어이고 그 사실은 여성언어가 해당국어의 일탈된 형태로 인식될 수 있음을 설명해준다.

근본적으로 남성적 모습을 띠는 이 언어는 여성에 대한 경멸을 담고 있고 여성언어에서 여성의 위치는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언어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도구의 형태를 바꾸어 가며 나타나고 있다.

## 통신은 문명의 이익인가 이기인가

통신폭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빠르고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여러가지 혜택 속에서 PC 통신을 통한 음란, 폭력과 같은 불건전 정보의 유통, 컴퓨터 범죄, 각종 사기사건, 통신상의 성폭력과 언어폭력, 남의 ID도용 등 새로운 문제점으로 근래에 들어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그 피해도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음란물과 폭력물들이 버젓이 게시판에 등장하여 사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어 윤리적으로도 문제시 된다. 뿐만 아니라 게시판에 입에 담기 어려운 저속한 언어들과 음란한 내용들을

전화	PC통신
<b>1. 음란전화</b> 성과 관련된 내용 성적호기심 질문 성적희롱 성관계 질문 성적인 욕설	<b>1. 인권침해</b> - 대화방에서 퇴폐성 욕설난무 - 대화방을 따라다니면서 음탕한 말로 행패 - 통신으로 사권 여성에게 불만을 품은 자가 그 여성을 통신에서 추방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웨방 - ID를 나타내지 않는 방법으로 욕설 <b>2 음란물 유포</b> - 대화방 제목을 음란스럽게 정하여 타 이용자를 부추김 - 심야에 잠시 게시되는 음란 퇴폐성물 - 도서심의시 제재 받은 내용이 PC통신에 게시물로 등장 <b>3 음란물 매매 및 교환광고</b> - 음란물임을 밝히지 않은 CD-ROM Title매매 광고 - 수집한 아설을 PC통신으로 판매
<b>2 비음란전화</b> 침묵전화 일방적인 욕설 협박전화 장난전화 상품강매 전화	

게재하고 대화방에서 마구 욕을 해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이 폭력 앞에 우린 아무런 대책없이 노출되어야만 하는가? 아니다. 조금이나마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그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문명의 변화앞에 통신문화가 제어되어야 할 것인가 법적 규제가 당연하다는 당위성과 정보통신을 위축시킬 수 없다는 합리성의 의견이 분분한 것이 통신문화의 현주소다. 그러나 PC통신에 버젓이 등장하는 성폭력(언어폭력 포함)에는 무관심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단순한 언어폭력이 제2 제3의 '악'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규제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전화	PC통신
<b>1. 개인적 대응방안</b> ① 재빨리 끊어버린다 ② 남성에게 수화기를 넘긴다 ③ 전화번호를 바꾼다 ④ 고전화 방지기를 이용한다 <b>2 법적 대응방안</b> ① 형사적 처벌방안 - 어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거나 신체와 재산을 해친다 (협박죄로 형법 제283조) -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위협 (공갈죄 형법 제350조) - 반복하여 폭언 (폭행죄 형법 제280조) ② 민사적 처벌방안 - 협박이나 공갈 또는 심한 폭언을 하는 전화의 경우 정신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청구	<b>&lt;개인적 대응방안 &gt;</b> ① 신속한 삭제 ② ON-LINE 심의제도 운영 신속한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ON-LINE 심의위원회 운영 필요 ③ 신고자의 신고의식 고취 <b>&lt; 문제점 &gt;</b> ① 평범한 이용자에게 본인의 도와는 달리 일방적 전송행위라는 점 ② 음란물인 경우 통제가 소홀한 심야에 잠깐 발생후 소멸 ③ 음란물 판매 및 교환은 은밀히 이루어 진다



# 아담바위의 전설

김우정(소설가)

**연** 일곱의 눈부신 봄날을 생각한다. 안개처럼 짙은 햇살이 교정 안에 가득히 쌓이면 낮이 나간 열 일곱의 소녀들이 교실 창가에 모여든다. 그들의 눈에 맑은 물이 고이고 금세 뺨을 타고 흘러내릴 듯 위태롭다.

우리 언니가 그러던데... 누군가 손가락을 들어 뿌연 정경 너머의 컴컴한 어딘가를 가리킨다. 그 손가락 끝에 젖빛으로 떠오르는 것은 커다란 돌덩이다. 그 바위는 배봉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것일까. 음침한 뒷산에서 학교 건물을 잇는 위치에 딱하니 버티고 서서 무언가 묘한 시선을 여학생들에게 던지고 있다. 옹홍하고 퇴폐적인 분위기 때문에 섬뜩한 느낌이 드는 그런 바위다.

수많은 언니들과 선생님들의 입으로 전해들은 그 해괴망측한 전설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면이 있었다. 여학생들에게 그것은 무료할 때 얘기하며 웃어넘기는 심심풀이 땅콩과도 같았다. 그 바위에선 배봉산을 타고 내려온 아담이 나타나 공연을 하는 무대라고 했다. 여학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나타나 추태를 부리는 성병환자, 그 이름도 거룩한 아담. 어느 학교에선 슈퍼맨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한바탕 폭소를 터트렸다. 슈퍼맨이라니, 어쨌거나 우리들은 그 노출증 환자를 아담이라 불렀다.

아담에 대한 갖가지 일화와 아담 퇴치법들을 전해들으며 끝끝 혀를 차던 열일곱의 나는 아직까지 그 악명 높은 전설 속의 주인공을 애석하게도 만나 본 일이 없었다. 귀신 이야기를 즐겨 하지만 진짜 귀신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 마음이 되기도 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녁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 때 우리는 줄넘기 연습을 하고 있었다. 뒤통거리면서 이단뛰기를 하던 여학생들의 모습이라니. 야 이리다 무다리 되겠다. 걱정마, 넌 이미 무다리야. 체크무늬 교복 치마를 필력이며 줄넘기를 넘던 나는 제자리에 폴짝 주저앉는다. 그렇게 근엄한 자세를 본 일이 없다. 훈련을 잘 받은 군인처럼 두 다리를 쭉 벌리고 열중 쉬어 자세를 하고 있는 다리. 그 다리 사이가 시어진 내 눈에 들어왔다. 상체의 모습은 나무에 가려 내가 앉은 자리에선 잘 보이지 않았다. 애들아 저게 뭐지? 양치기 소년이 그렇게 외쳤겠지? 여학생들의 비명이 터지기 시작했다. 겁에 질려 호들갑스럽게 소리를 질러대는 거였다. 아담이 나타났다. 아담이 나타났다. 한바탕 소동이 일기 시작했다. 갓 고등학생이 된 어리디 어린 여학생들은 창가에 앉아 나누었던 농담들을 깡그리 잊고 허둥대었다. 아담 퇴치법. 아담은 놀라서 도망가려 하는 여학생들을 즐긴다. 그래서 태연하게 굴어야 흥미를 잃고 가버린다. 그러나 그 순간만은 아무도 그 아담퇴치법을 기억해 내지 못했다. 아무리 아담을 만났던 경험이 많은 여학생이라도 견디 내기 힘든 그런 모습이었기에.

나는 여학생들이 교실 안으로 냉큼 사라진 후에도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 도망가려 하면 발이 얼어붙곤 하는 악몽에서처럼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였다. 아담 바위에 아담이 나타났다. 그 상황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전부였다.

양복 바지를 벗어버리고 어딘가를 양손으로 주물러 대고 있는 광경은 그 호물대는 느낌에 구역질이 나왔다. 공포가 이런 것이구나. 정신을 좀 먹는 무시무시한 질병처럼. 그 공포는 내 위장을 뒤뜰어 대었다. 이름답던 열일곱의 봄날은 아담이라는 추

악한 도시물로 더러워지고 말았다. 내게 더이상 세상은 멋진 동화 같은 곳이 아니었다. 불쾌함들이 가득한 곳, 너무나도 불쾌해서 공포를 일으키는 그런 곳이 세상이었다. 불결해, 너무도 불결해.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또 씻어도 개운해지지 않았다. 남자들은 정말 더러운 동물이구나. 혐오스러웠다. 그 이후 나는 어디서나 그날의 아담을 만났다. 버스를 기다리다 쭈뼛하는 느낌에 고개를 돌려보니 택시 운전사가 손님을 기다리며 나를 음탕하게 쳐다보고 있던 일도 있다. 이젠 손으로 셀수도 없다. 다리며 가슴을 쭉 훑어 내리던 멀쩡하게 생긴 아저씨들의 눈빛. 세상 남자들은 모두 아담인 것일까. 그들에게도 딸이 있을텐데, 자기 딸이

반쪽이 그림판



아닌 여자는 모두 성적 도구로 생각하는 듯한 그 지저분한 시선들을 떠올리려니 가슴이 팍 막혀온다.

살덩이들이 왜 이렇게 많냐. 침을 흘리며 여학생들의 무리를 쳐다보던 나이 지긋한 인부의 목소리도 생각한다. 술이 거나해서 느끼하던 목소리가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었다. 신체적인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폭력의 일종이다. 오히려 신체적인 상처보다 더 치유하기 힘든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폭행인 셈이다. "쳐다봐 달라고 미니 스커트 입는 것 아니냐?" 하던 남학생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서슴치 않는 우리 사회의 남성들은 모두 내가 보았던 그 날의 아담과 다를 바가 없다. 세상 전체가 그 전설 속의 아담바위인 것을. 지금도 역사와 전설속의 선배 아담들의 전통을 이어 받은 또 다른 아담들이 그 바위에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열 일곱의 여학생들이 공포에 떨겠지. 죽기보다 싫은 기분을 떨치려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언니가 잘못했다. 후배들에게 공연히 미안해진다. 어쩌다가 그런 공포를 물려주는 선배가 되었을까. 어찌할 도리가 없어 죄스런 기분까지 든다. 아담 바위를 없애면 아담도 사라질까. 바보같은 생각도 해본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도망칠 수밖에.

애들아, 이 언니들처럼 너희도 무능한 언니들이 되겠구나. 너희 후배들에게 그 공포를 고스란히 물려줄 수밖에 없는 한심한 선배가 되고 말겠구나.

김우정씨는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작고 가벼운 우울」이 당선되어 문단에 첫발을 내디딘 신예작가이다. 현재 이화여자 대학교 2학년 재학생이며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 포르노 = 성교육 ?

이숙경(출판기획자)

어린  
 마전 「펜트하우스」 한국어판이 배포되자 국가에서 이를 수거하는 일이 있었다. 또 연세대 교수였던 마광수씨가 사라논쟁에 휘말려 급기야는 교수직을 잃고야 말았다. 연극도 매년 벗기 열풍에 시달리고, 영화는 말할 나위도 없으며, 신문, 잡지 할 것 없이 온갖 성적 암시와 노골적인 성적 표현으로 가득차 있는 게 우리의 환경이다.

물론 포르노, 다시말해 '포르노그래피'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만만한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포르노가 과연 해로운 것이냐, 금해야 하는가 아니면 성적인 욕망과 그것의 표현이 인간의 본성이니만큼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 등등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허용한다면 어디까지를, 그 허용의 기준은 무엇이나 등등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논의는 복잡하기 그지없다. 포르노그래피와 관련된 복잡한 논쟁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문제가 금지 혹은 허용, 어느 한편의 입장을 명명백백하게 취할 수 있을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다.

포르노그래피는 여성의 종속을 가속화하고 성을 수단화하며, 여성을 대상화, 사물화시키는데 이바지해왔다는 입장아래 비판받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로 부모가 외출한 사이 포르노를 보거나 음란서적을 뒤적이면서 어린 청소년들이 불량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신문지상에 보도되기도 한다.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다”라는 말이 있다. 포르노그래피와 성폭력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결과들도 나와 있긴 하지만 포르노그래피가 곧바로 성폭력의 조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의 성급한 연결을 내려서는 곤란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 혹은 청소년의 성을 대상화하고 수단화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오직 포르노그래피에 의해서만 습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한편으로는 성폭력과 같은 왜곡된 성행동이 오히려 포르노그래피와 같은 매체를 통해 대리 해소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어떻게 보면 포르노그래피란 인간이 갖고 있는 성적 본능과 성적 쾌락의 추구라는 속성들을 영상매체나 지면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성적 본능과 성적 쾌락이 무엇이나에 따라서 포르노그래피의 내용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처럼 여성이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보조적인 존재로서 푸대접 받고 대상화되며 인식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

에서 여성의 성에 대한 규정은 왜곡되고 일그러진 것일수 밖에 없다. 즉 기존사회가 갖고 있는 이중적 성구범과 여성종속, 남성억압의 구범을 포르노그래피는 그대로 반영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비록 애매하고 기준이 정해지긴 어렵지만 인간이 자신의 성에 대해 표현하고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 자체를 추하고 비도덕적이라고 보는 것과,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내용의 포르노그래피의 해악의 차이점이다. 이 두 경계는 결코 명료하지 않다. 사람에게 따라서 폭력적인 내용을 보고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고, 굉장히 노골적인 내용도 무난하게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같이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성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포르노그래피는 청소년에게 마치 성폭력과도 같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것의 내용이 해악을 끼치는가 아닌가를 판단하기에 앞서 평생 햇빛을 보지 않고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한낮의 태양아래 노출되는 것 같이, 성에 대한 온갖 금지와 침묵 속에서 성장한 청소년이 포르노나 음란잡지를 접한다면 본인 스스로 자신의 판단아래 행동과 의식을 취사 선택할 능력이 미처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곡되고 폭력적인 성에 대한 포르노의 각본이 한 인간의 뇌리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 사람이 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경로는 오직 포르노 뿐만은 아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수적인 성지식을 얻어들을 수 있고, 좀 더 고급의 지식을 습득할 가능성도 있으며, 성의식과 행동은 두고두고 나이를 먹으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처럼 다양한 정신과 지식을 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오로지 모든 것을 숨김없이, 노골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매체가 포르노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3년전 부산대학교의 성과학 수업교재가 모두 수거되고 불살라진 예가 있었다. 대학생 수업교재에 너무나 노골적인 성기, 성행위와 관련한 사진과 내용이 실렸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했기 때문이었다. 대학생들에게조차 솔직한 성기의 그림을 보이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알려준단 말인가? 이런 현실 속에서선 학생들은 포르노를 볼 수밖에 없다.

포르노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해악과 위해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대단한 것이겠지만, 그보다 먼저 포르노가 성지식을 가장 솔직하게 전달해주는 매체로 자리잡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상**담소가 개소한 이래 가장 오래된 자원활동가들 중에 하나가 나눔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나눔이들은 상담소가 문을 연 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항상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상담소 안에서 그다지 큰 일을 맡아하지는 않지만 설거지, 복사, 신문스크랩, 운영업무에서부터 외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을 하므로써 상담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눔터 기자, 조사연구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국내외 자료관리, 상담소 내 도서관리, 컴퓨터 등 10개의 업무를 분담하여 각자 숨은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문을 연 9년부터 지금까지 133명의 나눔이들이 있었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나눔이들은 9기 13명과 슬슬 중인 10기 5명입니다. 나눔이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유명하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담소 상근자로 계시는 노주희 선생님(1기 나눔이), 정경애 선생님(1기 나눔이), 상담권 이신 연민이 선생님(4기 나눔이) 등 많은 분들이 바로 나눔이에서 상담소 내의 유명 인사가 된 주인공들입니다.

나눔이의 유일무이한 소모임으로는 4기 나눔이였던 조유경영이 만든 등산모임인 '야호'가 있습니다. 요일별로 근무하기 때문에 모두 만나 볼 기회가 적은 나눔이들이 등산을 하므로써 더욱 두터운 친목을 도모하고자 만든 모임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성격을 조금 달리하여, 등산 뿐만 아니라 수목원, 춘천 등 서울 근교의 여러 곳으로 장소를 확장시켰습니다. 이외에 나눔이들이 모두 함께 모이는 자리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있는 나눔이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한달동안 상담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듣고, 그동안 나눔이들의 활동을 정리하고 다음달의 활동을 계획합니다. 요즘 진행 중인 사항으로는 '컴퓨터 통신 띄기와 추임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나눔이를 그만둔 동문들이 만든 '나눔이를 걱정하는 모임'이 결성되어 상담소를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되려고 어찌 막 출발했습니다.

나눔이가 되려면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합격이 되면 2차례의 교육을 받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올 9월에는 10기 새식구 11명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나눔이의 활동기간 1년을 마치신 분들께는 필요로 할시에 경력 증명서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년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온 나눔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동시에 상담소에서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나눔이가 될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결국 우리는 손과 발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닌 수레바퀴처럼 톱니가 서로 잘 어울려 돌아가는 상담소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만큼 상담소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진상 기자

나눔이편

# 상담소의 손과 발



▲ 나눔이 정기회의



▶ 나눔이 동문모임

##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새로운 나눔터 직원

강익자, 강정희, 송지연, 이옥자, 정선희, 정옥희, 최영자, 홍사울, 리사 김 데이비스

### 도서 기증

문국진 박사 - 아는 사람아 전해주렴      배금자 변호사 - 이의 있습니다

이명숙 변호사 - 딸들이 일어나라 깨어나

이지은 - 직장내 성희롱의 순응과 저항에 관한 일 연구 (논문)

### 기부금

김강자, 김미라, 김은희, 김학준, 박금자, 이종걸, 장영복, 정선희, 최재철, 현정자, 길병원, 본상담소 7기 상담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의전화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 건강한 일터, 자유로운 여성

대 상 : 여성 졸업반 학생,  
예비 직장인, 남녀 직장인  
상영시간 : 30분  
가 격 : 1만 8천원  
기 획 :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제 작 : 파나비전  
판 매 처 : 한국성폭력상담소

## 비디오를 구입하려면

1. 상담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접 구입이 어려운 경우는 우송료 2천원을 포함하여 2만원을 온라인으로 보내 주시면 입금이 확인되는대로 등기 우송에 드립니다.

### ●온라인 구좌 번호

국민은행 : 009-01-1176-632  
예금주 : 한국성폭력상담소



## 후원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비디오 제작 후원

## 대한 적십자사 본사 부녀봉사 특별자문위원회

나라 종합법률사무소 - - - 변호사 · 이종걸  
박금자 산부인과 (부설 불임연구소) - - - 원장 · 박금자  
서울치과병원 (치과 종합병원) - - - 병원장 · 민병진  
청초법무법인 - - - 변호사 · 강기원  
(가나다순)

### 비디오 팸플릿 제작

(주) 대교  
(주) 한국 웰링

# 나눔터

1995.9 / 제 16호

이번 날 일전구백구십오년 9월 25일

이번 곳 한국 성폭력 상담소

이번 이 최영애

만든 이 김병준 신재이 연민이 이규화 이수지 이진성 정윤경 홍은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과의 상담활동을 통해 아픔을 함께 나누고 건강한 삶을 되찾게 하는데 큰 뜻을 둔 단체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모든 상담활동,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의 교육활동, 소식지·교육자료·연구를 간행 등의 홍보출판 활동, 사례분석·실태조사·자원의 연구·수집 등의 조사연구 활동, 나라 안팎의 기관이나 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상담원 활동과 나눔이 지킴이 활동, 후원회원, 나눔터 회원, 기증 등의 방법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작은 실천과 큰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 상담소는 성폭력 예방 활동으로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 이사

강기원 민병진 박금자 오세민 윤정순 이종걸 정동철 최영애 주애주

### 감사

배자아/세무사 차재능/외계사

### 자문위원

#### 상담

기독교학/서광선 사회학/정영복 심리학/박애선·이정호·조혜자·이혜성 아동학/정연접 여성학/한정자

#### 법률

김시/김옥철 법학/한인섭 변호사/강기원·김삼화·박진운·신기남·이영숙·이상경·이종걸·이향아·임종민·정재호·장철우·정갑생·조영림·왕산성

#### 의료

가정의학/김중구 법의학/강신몽·권일훈·문국진·서중석·이경률·이윤성·이원태·최영석·황적준 산부인과/김주필·김연석·남소자·문영규·민응기·박경자·박금자·박소현·박양실·박종민·안영옥·윤경·이경희·이길녀·이옥주·임용택·안중수 성영외과/정영택 소아정신과/곽영숙·최본문 신경정신과/김광일·김동순·김병우·김정일·남정연·소희의·양정순·윤애리·이나미·정동철·최전숙 외과/오세민 임상병리과/강정옥·문예란·이재숙

#### 연구

교육학/김인수 사회학/김준호·심영희·조영 여성학/이재경·정필화·조순경·조주연 인류학/정병호 철학/이상화·정대현 통계학/이용재

#### 홍보·출판

동시통역/김지명 시학/박진숙 시사만평기/최정현 신문방송학/김영숙·최선열 언론인/김철기·전여옥·조성숙 여성학/박혜란·오숙희 연극인/김지숙·손숙 출판/강경중

#### 재정

고석주 김미주 김우혜 문선경 민병진 박영희 윤정순 최조자 주애주

#### 대표이사

● 박금자

#### 소장

● 최영애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우체국 사서함 45호

우편번호 137-600

일반상담 02-529-4271~2

위기상담 02-573-1888

사무전화 02-576-7128, 575-0980

팩시밀리 02-576-7127